(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8 (2026. 4.), 136-156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6.4.58.136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마태복음 10:38에서 οὐ의 부정 범위

한철흠*

1. 서론

복음서의 중심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바울서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1] 일찍이 캘러(M. Kähler)는 마가복음이 확장된 서론을 지닌 수난 이야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복음서에는 서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수난 이야기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말은 옳다. 그만큼 십자가에 관한 복음서의 가르침은 중요하고, 특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마태복음 10:38 — 그리고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4:27 — 의 해석과 번역은 파급력이 크다.

본 연구자는 마태복음 10:38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련의 행동을 거부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영어 성경 번역과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다.[2] 프랑스(R. T. France)는 이 구절에 예수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미지(the image of carrying the cross

* Vanderbilt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scratch@kbtus.ac.kr.

1) 다음 구절을 참고하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개역개정』, 고전 1:22-23).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개역개정』, 고전 2:2).

2) 예를 들면, D. L. Turner, *Matthew*,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281.

after Jesus)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명령은 16:24에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본다.[3] 십자가 처형의 육체적 고난과 공개적 수치는 죄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무거운 가로대를 지고 군중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거리를 진행할 때 시작되었다.[4] 예수가 "합당한" 제자 앞에 제시하는 모습은 그런 잔인한 죽음과 공개적 수치다.[5]

그런데『새한글』에서는 이 구절을 번역하며 기존의 우리말 성경과 사뭇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기존의 우리말 번역과 영어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련의 행위를 부정하는 반면,『새한글』의 번역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을 부정하였다. 이 번역이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새한글』의 번역이 원문에 담긴 여러 의미 중에 한 의미만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장단점을 지님을 보이고자 한다. 장점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 단점은 가능성이 낮은 다른 의미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새한글』 번역을 평가하기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마태복음 10:38과 누가복음 14:27의『새한글』 번역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를 소개할 것이다. 4장에서는 수학과 논리학, 그리스어, 영어, 우리말 등에서 부정의 범위가 중의적임을 보일 것이다. 5장에서는 그리스어와 영어 및『개역개정』의 마태복음 10:38의 중의성을 분석하고, 이와 대조되는『새한글』 번역의 단의성(單義性)을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 마태복음 16:24가 10:38의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후에, 7장에서는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담은『개역개정』 마태복음 10:38의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2. 마태복음 10:38

마태복음 10:38은 누가 예수에게 합당하지 못한 자인지 말해 준다. 이 구절의 그리스어 원문과 우리말 번역은 다음과 같다.

GNT[5]	ὃς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οὐκ ἔστιν μου ἄξιος.
『개역개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

3) R. T. France,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410.
4) Ibid.
5) Ibid., 411.

	당하지 아니하니라
『새번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공동개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새한글』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류호성은 직설법에 사용되는 οὐ — 그리고 그 외의 법에 사용되는 μή — 가 대개 부정하고 싶은 단어 바로 앞에 온다고 본다.[6]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등의 마태복음 10:38 번역, 즉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십자가는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새한글』의 번역 "십자가를 받아서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십자가를 메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이다.[7]

영어 성경(KJV, NIV, NRS, ESV) 번역 "any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에서 동사 "take(지다)" 앞에는 부정어 "not"이 있지만, "follow(따르다)"에는 부정어가 없고, 독일어 성경(LB, EIN, BB) 번역 "wer nicht sein Kreuz auf sich nimmt und folgt mir nach"에서도 부정어 "nicht"는 동사 "nimmt(지다)" 앞에 있지만, "folgt(따르다)"에는 없음에 주목한다.[8] 한마디로, 영어와 독일어 번역 성경 모두 부정어 οὐ가 바로 뒤에 나온 동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번역했다는 주장이다.[9]

류호성은 자신의 십자가는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음을 말하는 우리말 기존 번역이 문법적 번역보다는, "따름"을 강조하는 신학적 번역이라고까지 주장한다.[10] 이와 달리, 『새한글』 번역의 방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문제에 찍히는데, 이는 GNT[5], 영어, 독일어 번역본도 마찬가지다.[11]

그러나 다음에 살펴볼 바와 같이, 기존의 우리말 번역이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영어와 독일어 번역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킨다는 해석은 이 번역들에 담긴 중의성을 간과한 해석이다.

---

6) 류호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마태복음 —",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2024), 24.
7) Ibid.
8) Ibid.
9) Ibid.
10) Ibid., 25.
11) Ibid.

3. 누가복음 14:27

누가복음 14:27은 마태복음 10:38의 평행 구절이다. 누가복음 14:27에 대한 정창욱의 분석은 마태복음 10:38에 대한 류호성의 분석과 사뭇 다르다. 이 구절의 그리스어 원문과 우리말 번역은 다음과 같다.

GNT[5]	ὅστις **οὐ** βαστάζει τὸν σταυρὸν ἑαυτοῦ καὶ ἔρχεται ὀπίσω μου, οὐ δύναται εἶναί μου μαθητής.
『개역개정』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새번역』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공동개정』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새한글』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창욱에 따르면, 누가복음 14:27의 『새한글』은 "메지 않고"라고 번역하여 "내 뒤를 따르는"을 부정하지 않지만, 모든 영어 성경과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은 "십자가를 메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번역하였다.[12]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지니는 중의성을 간과한 해석이다. 다음에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의미는 누가복음 14:27의 중의적 의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정창욱은 원문의 중의성을 인지하는 듯하다. 누가복음 14:27에서, 그리스어 문법상으로 부정어는 첫 번째 동사에만 있기에, 이 부정어가 반드시 두 번째 동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13] 정창욱은 부정어가 첫 번째 동사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 동사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인지하고, 따라서 『새한글』뿐만 아니라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의 번역도 문법적으로 가능함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창욱은 『개역개정』 등의 번역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으로써, 우리말의 '않다'가 그리스어의

12) 정창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누가복음 —",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2024), 39.

13) Ibid., 40.

οὐ와 달리 중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본 논문에서는 οὐ뿐만 아니라 '않다' — 그리고 영어 not — 도 부정하는 범위가 중의적임을 보일 것이다.

류호성과 정창욱은 마태복음 10:38과 누가복음 14:27의 우리말 번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판이하게 해석한다. 류호성에 따르면, 이것은 자기 십자가는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정창욱에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자를 가리킨다.

이 두 해석은 이 표현의 중의성을 모두 살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스어 οὐ, 영어 not, 우리말 '않다' 등이 부정하는 내용은 이들의 주장대로 단의적이지 않고 중의적임을 보이고, 『새한글』의 번역은 이 중의성을 살리지 못함을 보일 것이다.

4. 부정의 범위(scope of negation)

류호성은 οὐ가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부정한다고 전제하지만, 이는 지나친 단순화이다. 본 연구에서 부정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데, 문법적으로 부정어 οὐ는 뒤에 오는 표현을 부정하지만, 그 범위가 바로 뒤의 단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부정의 범위는 문맥으로 결정될 때가 있다.

4.1. 드모르간의 법칙(De Morgan's Laws)

수학과 논리학 등에서 사용되는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리고' 혹은 '혹은'으로 연결된 두 표현의 부정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두 개의 진술 P와 Q에 관한 드모르간의 법칙은 다음과 같다.[14]

$$\sim (P \wedge Q) = \sim P \vee \sim Q$$ [15]
$$\sim (P \vee Q) = \sim P \wedge \sim Q$$ [16]

드모르간의 법칙이 일상 언어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Not both P and Q는 하나 혹은 다른 하나가 (혹은 둘 다) 부족함을 의미한다.[17] 다시 말해, (P이고 Q)를 부정하면, P를 부정하거나, Q를 부정하거나, P와 Q 둘 다 부정하

14) B. Richmond and T. Richmond, *A Discrete Transition to Advanced Mathematics*, Pure and Applied Undergraduate Texts 3 (Providenc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2004), 27.
15) 이 정리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P 그리고 Q)의 부정은 P의 부정 혹은 Q의 부정과 같다.
16) 이 정리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P 혹은 Q)의 부정은 P의 부정 그리고 Q의 부정과 같다.
17) B. Richmond and T. Richmond, *A Discrete Transition to Advanced Mathematics*, 27.

게 된다. 반면, NOT (P or Q)는 P도 아니고 Q도 아님을 의미한다.[18]

본 논문의 관심은 첫 번째 법칙에 있다. 두 진술이 모두 참임에 대한 부정은 두 진술 중 하나에 대한 부정으로 읽힐 수도 있고, 두 진술 모두에 대한 부정으로 읽힐 수도 있다. 이제 이 법칙이 그리스어와 영어 및 우리말의 부정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2. οὐ의 부정의 범위

마태복음 6:24의 그리스어 원문 οὐ δύνασθε θεῷ δουλεύειν καὶ μαμωνᾷ를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이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는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과 재물 중 반드시 하나를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 그리고 우리의 언어 직관 — 에 따르면, 하나님과 재물을 모두 섬길 수 없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경우, 둘째로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 셋째로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재물도 섬기지 않는 경우이다. 이 구절은 단지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만을 섬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섬기면 나머지는 (똑같이) 섬길 수 없음을 뜻한다.

마태복음 6:24를 ESV에서는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로, NIV에서는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들은 하나님과 돈을 모두 섬길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표준』에서는 "함께"를,『개역개정』에서는 "겸하여"를,『새번역』과『공동개정』에서는 "아울러"를 첨가하였다. 원문의 문자적 번역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이지만, 이 번역은 하나님도, 재물도 섬기지 못한다는 전체 부정의 의미로 읽힐 수 있고, 이것은 원문의 중의적 의미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단어를 첨가함으로써 부분 부정의 의미도 포함하는 중의성을 살린 번역은 타당하다.

4.3. not의 부정의 범위

영어 not은 뒤의 표현을 부정하는데, 그 범위는 획일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You cannot eat your cake and have it"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19] 류호

18) Ibid.

19) 이 속담은 "You cannot have your cake and eat it"이라고도 한다.

성의 주장대로라면, 이 문장에서 부정어 “cannot”은 바로 뒤에 있는 절 “eat your cake”만을 부정한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너는 너의 케이크를 먹을 수 없고, (너는) 그것을 가진다”가 된다. 그러나 이 속담에서 “cannot”은 뒤따르는 두 절, 즉 “eat your cake”와 “have it”을 부정한다. “cannot”이 부정하는 내용을 대괄호에 넣으면, “You cannot [eat your cake and have it]”이 되고, 그 의미는 “너는 너의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소유도 할 수는 없다”가 된다. 더 세분하면, “cannot”은 “eat your cake”를 부정할 수도 있고, “have it”을 부정할 수도 있다. 즉 청자(聽者)는 케이크를 먹을 수 없고 가질 수만 있든가, 케이크를 가질 수 없고 먹을 수만 있다.[20] 이 속담은 영어의 부정어가 반드시 바로 뒤의 단어, 구, 절 등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리스어 οὐ의 위치는 영어 not의 위치와 같으므로, 부정의 범위 또한 같다. οὐ와 not은 뒤따르는 표현을 부정하는데, 바로 뒤의 표현만을 부정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부정할 수도 있다.

4.4. ‘않다’의 부정의 범위

우리말 부정어 ‘않다’의 위치는 영어 — 그리고 그리스어 — 와 다를 뿐이지, ‘않다’의 부정의 범위 역시 획일적이지 않다. 따라서 다음 문장은 중의적이다.

(1) 나는 모자를 쓰고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 부정어 “않았다”는 모자를 썼음을 부정할 수도 있고, 테니스를 쳤음을 부정할 수도 있고, 이 둘을 모두 부정할 수도 있다. 화자(話者)가 덧붙이는 말을 통해, 이 세 해석이 모두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 나는 모자를 쓰고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모자를 쓰지 않고 테니스를 쳤다.
(3) 나는 모자를 쓰고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모자를 쓰고 배드민턴을 쳤다.
(4) 나는 모자를 쓰고 테니스를 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모자를 쓰지 않고 배드민턴을 쳤다.

---

20) 문법적으로, 그리고 앞서 살펴본 드모르간의 법칙(De Morgan’s Laws)에 따르면, 이 문장은 케이크를 먹지도 못하고 케이크를 가질 수도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your cake(너의 케이크)”라는 표현은 이미 청자가 케이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므로, 이 의미는 사라진다.

위의 예문들은 '않다'가 두 절 중의 하나만을 부정할 수도 있고, 두 절 모두 부정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마태복음 10:38에 대한 류호성의 해석은 이 셋 중에 두 번째 해석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영어와 우리말에서 부정어는 부분을 부정할 수도 있고, 전부를 부정할 수도 있다. 영어 — 그리고 그리스어 — 의 not은 뒤따르는 표현 일부 혹은 전부를 부정하고, 우리말의 '않다'는 앞선 표현 일부 혹은 전부를 부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5. 마태복음 10:38의 중의성

5.1. 그리스어 마태복음 10:38의 중의성

마태복음 10:38의 번역과 해석이 쉽지 않은 이유는 부정의 불변화사 οὐ가 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ο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다'(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앞에 나온다. 문제는 οὐ가 부정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이다. οὐ의 부정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οὐ가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괄호에 넣으면 다음과 같다.

(1) ὃς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οὐκ ἔστιν μου ἄξιος.
(2) ὃς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οὐκ ἔστιν μου ἄξιος.

첫째로, οὐ는 바로 뒤에 있는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자기 십자가를 지다)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새한글』의 번역은 이 해석을 따른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은 사람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이다. 이 번역이 맞다면, 예수는 자기를 따르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사람의 무자격을 말한다.

둘째로, οὐ는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다)의 두 절(節)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 분석을 따르면, 마태복음 10:38의 해석은 간단하지 않다. 이 구절은 두 가지 행동을 다 함, 즉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예수를 뒤따르기도 함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고, 이는 다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으로 나뉜다.

전체 부정으로 읽으면,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자에 대한 말이다. 반면 부분 부정으로 읽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앞서 소개한 (1)의 의미와 같으므로, (1)의 의미는 (2)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킬 수 있다. (2)에서 οὐ가 부정하는 내용을 괄호에 넣으면 다음과 같다.

(3) 전체 부정: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4) 부분 부정-1: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5) 부분 부정-2: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5.2. 영어 마태복음 10:38의 중의성

영어 부정어 “does not”의 위치는 그리스어 부정어 οὐ와 같다. “The 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마 10:38, NASB).[21] 그러나 그리스어 원문과 달리, 영어 번역에서 “does not”은 (1)과 같이 “take his cross”만을 부정하지 않고, (2)와 같이 뒤따르는 표현 전부를 부정한다. 부정어 not이 “take his cross”만을 부정한다면, follow 동사 대신에 follows 동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The one”을 선행사로 가지는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는 삼인칭 단수 동사가 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사 원형 “follow”가 사용된 사실은 “does not”이 “take”뿐만 아니라 “follow”도 부정함을 보인다.[22] “does not”이 부정할 수 없는 내용과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괄호에 넣으면 다음과 같다.

---

21) 다음 영어 번역도 참조하라. “Whoever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ESV); “Whoever does not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NIV); “H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RSV); “If you refuse to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you are not worthy of being mine“ (NLT).

22) 그러나 주어가 삼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그리스어 원문의 중의성이 살아난다. 예를 들어, GNT는 마 10:38을 “Those who do not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in my steps are not fit to be my disciples”로 번역하였다. 이 문장에서 “do not”은 “take up their cross”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in my steps”의 두 절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 *The 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23)]
(2) The 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첫째로, “does not”은 바로 뒤에 있는 “take his cross(자기 십자가를 지다)”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새한글』번역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메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영어 번역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24)] 물론 바로 이어 살펴볼 바와 같이, (1)은 (2)의 중의적 의미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둘째로, “does not”은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다)”의 두 절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예수를 뒤따르기도 하는 두 행동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는 다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으로 나뉜다.

전체 부정으로 읽으면,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자에 대한 말이다. 반면 부분 부정으로 읽으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킬 수도 있다. (2)에서 “does not”이 부정하는 내용을 괄호에 넣으면 다음과 같다.

(3) 전체 부정: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4) 부분 부정-1: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5) 부분 부정-2: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5.3.『개역개정』마태복음 10:38의 중의성

그리스어 원문은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앞에 οὐ가 있지만,『개역개정』,『새번역』,『공동개정』등에서는 이 οὐ를 보조동사 ‘않다(“않는”)’로 번역하고, 우리말 어순에 맞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다’ 뒤에 놓았다. 그러나『새한글』에서는 “않고”를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메지” 바로 뒤에 놓음으로써, 기존의 번역들과 의미심장한 차이를 보인다.

23) 언어학에서 별표(*)는 비문(非文)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여기에서는 부정의 범위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
24)『새한글』의 번역을 영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The one who does not take (and carry) his cross and follows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새한글』 번역의 의미는 자명하다.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 관해 말한 것이다. 반면 『개역개정』 — 그리고 『새번역』과 『공동개정』 — 에서 "않는"이 부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스어 οὐ와 영어 not의 부정의 범위가 중의적이듯이, 우리말 "않는"의 부정의 범위도 중의적이다. "않는"이 부정하는 내용을 괄호에 넣으면 다음의 두 해석이 가능하다.

(1)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첫째로, "않는"은 바로 앞에 있는 '나를 따르다'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스어 οὐ가 바로 뒤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다'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듯이, 우리말 "않는"은 바로 앞에 있는 '나를 따르다'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십자가를 지되,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말이다. 물론 그리스어 원문에서, 부정어 οὐ는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를 건너뛰어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은 바로 이어 살펴볼 (2)의 중의적 의미 중 하나에 해당한다.

둘째로, "않는"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의 두 절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어 및 영어의 경우와 같이 『개역개정』은 전체 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분 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체 부정으로 읽으면,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자에 대한 말이다. 부분 부정으로 읽으면, 첫째로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를 가리킨다. 둘째로 이 구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소개한 (1)의 의미와 같으므로 (1)의 의미는 (2)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에서 "않는"이 부정하는 내용을 괄호에 넣으면 다음과 같다.

(3) 전체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4) 부분 부정-1: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5) 부분 부정-2: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요약하면, 우리말의 부정어는 그 앞에 있는 표현을 부정하고, 그리스어의 부정어는 그 뒤에 있는 표현을 부정하는데, 바로 앞이나 뒤에 있는 표현만을 부정할 수도 있고, 앞이나 뒤에 있는 표현 전부를 부정할 수도 있다. 앞뒤의 표현 전부를 부정할 때는 다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으로 나뉜다. 부정어의 위치만 다르고 부정의 범위는 한결같이 중의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말과 그리스어는 부정의 범위에서 경상(鏡像, mirror image)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25] 따라서 이렇게 중의적인 부정의 범위를 결정하려면, 문맥을 살펴보아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리스어 원문과 『개역개정』 — 그리고 영어 번역 일부 — 에서 부정어가 바로 앞이나 뒤에 있는 표현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는 앞이나 뒤에 있는 표현 전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의미들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따라서 부정어가 바로 앞이나 뒤의 표현만을 부정함이 확실하지 않으면, 앞이나 뒤의 표현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안전하다.

5.4. 『새한글』 마태복음 10:38 번역의 단의성

마태복음 10:38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를 따르는 자의 무자격을 말한다고 해석한 『새한글』의 번역은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이 번역은 마태복음 10:38의 중의적 의미 중에서 하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점이 있다. 『새한글』 번역은 예수를 따르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이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의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이고, 『새한글』 번역은 이 점을 부각하는 장점이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기에, 『새한글』의 번역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를 특정하여 준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즉시 넘어지는(마 13:20-21) 자들일 것이다.

물론 예수가 마태복음 10:38을 말하는 대상은 열두 제자이고(10:1상), 예수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26] 그러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나머지 열한 제자도 십자가

25) 앞서 살펴본 대로, 주어가 삼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 번역도 우리말과 경상을 형성한다. 각주 22번을 참조하라.

26) 류호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마태복음 —", 25.

에 직면하여 예수를 떠나고 만다. 제자들이 결국 예수를 떠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자들도 현 단계에서는 예수를 피상적으로 따를 뿐이다.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뿐만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따르라는 요구조차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태복음 10:38이 예수를 이미 충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한 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예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마 16:24) 무리에게도(눅 9:23)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마태복음 10:38의 『새한글』 번역의 단점은 무엇보다도 원문의 중의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원문의 중의성이 번역을 통해 단의성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최고의 번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마태복음 16:24와 연관하여 마태복음 10:38의 번역을 논하고자 한다. 10:38은 16:24가 제시하는 제자도의 모델에 미치지 못하는 복수(複數)의 경우를 암시하는데, 『새한글』 번역은 그중의 하나만을 특정하여 강조한다.

6. 마태복음 16:24와 10:38의 관계

NET에서는 마태복음 10:38을 주해하면서, "처형당하는 모든 범죄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플루타크(Plutarch)의 글을 인용하고,[27] 예수에 대한 충성이 절대적 우선이 아닌 사람은 거부당하고 박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28] 이 설명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름을 전제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16:24에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는 마태복음 16:24에서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어 원문과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GNT[5]	Εἴ τις θέλει ὀπίσω μου ἐλθεῖν, ἀπαρνησάσθω ἑαυτὸν καὶ ἀράτω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ίτω μοι.
『개역개정』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새번역』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27) Plutarch, *De sera numinis vindicta*, 9.554b.
28) NET 각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공동개정』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새한글』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수는 삼인칭 단수 명령법 동사 세 개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ἀπαρνησάσθω), 자기 십자가를 지고(ἀράτω), 예수를 따르라고(ἀκολουθείτω) 분명하게 전달한다. 위의 네 번역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미 차이가 없다.

마태복음 10:38은 이 요구를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이다. 이 구절은 자기를 부인함을 언급하지 않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은 자기 부인을 전제하거나 요구한다. 그렇다면 10:38은 16:24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의 자격 없음을 말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16:24는 예수를 따르는 바른 자세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반면, 마태복음 10:38은 그 자세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말이다. 그런데 10:38에서는 그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타내기 위해 부정어 οὐ를 사용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불변화사가 부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0:38이 가리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혹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혹은 둘 다 하지 않기 때문에, 16:24의 모델에 미치지 못한다. 『개역개정』을 포함하는 기존의 우리말 번역은 이 가능성을 모두 살리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다.

7. 『개역개정』 마태복음 10:38의 의미

앞서 살펴본 대로, 류호성은 기존의 한글 번역들이 자기 십자가는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음을 말한다고 해석한다. 이것은 분명 문법적으로 가능한 의미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26의 『개역개정』 번역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이미 들은 자들에게 한 말이므로 듣지 않은 자를 상정할 수 없다. 또한 그리스어 ὁ ἀκούων μου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καὶ μὴ ποιῶν αὐτοὺς에서 부정어 μή는 ἀκούων μου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나의 이 말들을 듣는) 뒤에 있기에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부정의 범위는 중의적이지 않다. 그러므로『개역개정』의 번역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수정하여 원문의 명확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10:38의『개역개정』번역은 문법적으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 구절은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들에게 한 말도 아니다.

게다가『개역개정』번역자들이 류호성이 제안하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지되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번역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했을 것이다. 마태 역시 자기 십자가는 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키려 했다면, ὃς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οὐ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로 썼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마태는 23:3에서 λέγουσιν … καὶ οὐ ποιοῦσιν이라고 씀으로써, οὐ λέγουσιν … καὶ ποιοῦσιν이라고 쓸 때 생기는 중의성을 피해 갔다.『개역개정』역시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그들(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로 번역함으로써, οὐ가 부정하는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λέγουσιν … καὶ οὐ ποιοῦσιν을 "그들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로 번역하면, "아니하며"는 "행하지"만을 부정하거나 "말하고 행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음을 번역자들도 알았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새번역』에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로,『공동개정』에서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로 번역하였다.

누가복음 14:27의『개역개정』번역은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정창욱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해석은 우선『개역개정』번역의 중의성을 간과한다. 또한『개역개정』번역자들이 그 의미를 의도했다면 필시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누가가 전체 부정을 의도했다면 οὔτε … οὐτε … 구문을 사용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ἐν … τῇ ἀναστάσει οὔτε γαμοῦσιν οὔτε γαμίζονται(마 22:30)는 '부활하면 그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마태복음 10:38 및 누가복음 14:27의『개역개정』번역에 대한 류호성과 정창욱의 해석이 옳다면,『개역개정』번역자들은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셈이다. 또한『새한글』의 번역대로 마태복음 10:38 — 그리고 누가복음 14:27 —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 대

해 말하고자 했다면, 마태복음 23:3의 어순처럼,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καὶ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혹은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μὴ λαμβάνων(혹은 λαβών)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로 표현했을 것이다.

게다가 일각의 주장대로『개역개정』번역자들이 아무리 신학적 번역을 하였더라도, 그리스어 원문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를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 λαμβάνει 앞에 있는 οὐ를 ἀκολουθεῖ 앞으로 옮긴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어 문법을 모르거나 파격적으로 위반한 셈이다. 그럴 가능성보다는 본 논문의 주장대로 번역자들이 원문의 중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어 οὐ는 뒤의 표현(들)을 부정하고, 우리말 '않다'는 앞의 표현(들)을 부정한다는 사실 역시 필시 알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마태복음 16:24에 제시된 제자의 모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16:24에서 언급하는 자기를 부인함은 10:38에 빠져있고, 두 구절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짐과 예수를 따름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어 원문과 영어 번역뿐만 아니라『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르면, 마태복음 10:38이 의미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제자"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것.
(2) 십자가를 지되,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
(3)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도 따르지 않는 것.
(4)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것.

첫 번째 해석은『새한글』의 번역으로서, 어쩌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흔한 경우일 것이다. 단, 원문의 중의성을 살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십자가를 지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두 번째 해석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 없이 십자가를 질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도 따르지 않는다는 마지막 해석의 모습은 마태복음 16:24가 그리는 참된 제자도의 대척점에 서 있다. 이 해석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불신자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해석은 그리스어 원문을 근거로 한다. 10:38에 사용된 동사는 현재 시제인 λαμβάνει와 ἀκολουθεῖ다. 그리스어 현재 시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οὐ는 λαμβάνει와 ἀκολουθεῖ에 담긴

동작의 지속성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29] 이들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잘 따르지만, 극심한 환난이나 박해에 직면해 십자가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다. 예수는 누가복음 9:23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0:38에서 예수가 지적하는 문제는 단지 예수를 편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를 편하게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는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련의 행동에 어떤 식으로든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예수를 편하게 따르는 자들만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문법적 증거는 없다. 중의적 원문에 대한 최선의 번역은 중의적 번역이다. 원문의 중의성을 살린 기존의 우리말 번역들은 문법적 번역이고, 원문의 중의성을 단의성으로 바꾼 『새한글』의 번역이 오히려 신학적 번역이다.

요약하면, 예수가 무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자신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예수를 계속 따르는 이상적인 제자도이다. 이것에 미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다 중도에 포기하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8. 결론

본 논문은 부정어를 번역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0:38의 『새한글』 번역은 기존 우리말 번역의 중의성을 제거하였지만, 새로운 중의성을 만들어 냈다. 왜냐하면 『새한글』 번역은 그리스어 οὐ가 '나를 따른다'를 부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지만,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메지 않고"라는 번역 자체가 중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않고"는 "받아서 메지"를 부정할 수도 있고, "메지"만을 부정할 수도 있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십자가를 받고 메는 일련의 행동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이것은 필시 『새한글』의 의도일 것이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

29)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θεοῦ ἁμαρτίαν οὐ ποιεῖ)고 말하는 요일 3:9를 번역할 때, 동사 ποιεῖ의 현재 시제에 주목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죄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다. 예를 들면, ESV는 "No one born of God makes a practice of sinning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아무도 습관적으로 죄짓지 않는다)"으로, NIV는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아무도 지속적으로 죄짓지 않을 것이다)"으로 번역하였다.

면,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받기만 하고 메지는 않는 자를 가리킨다. 물론 그리스어 원문에서 단어 하나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지만, 이 해석도 문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처럼 부정어가 부정하는 범위를 인식하고 해석과 번역에 반영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예수가 마태복음 16:24에서 요구하는 제자도의 전형은 분명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0:38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자도의 여러 모습을 암시할 수 있다. 그리스어 원문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두 행동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함을 말하므로, 우리말 번역도 이 점을 분명하게 살려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태복음 10:38의 영어 번역과 『개역개정』이 미세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의성을 살리는 장점이 있음을 보였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다(시 119:103). 번역된 성경을 읽는다고 그 달콤함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목표 언어가 기점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 독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신약성서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와 관련된 구절들의 번역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한편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기도 해야 한다는 마태복음 16:24의 의미를 고려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상적 모델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자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마태복음 10:38의 중의성을 살려, 10:38을 번역할 필요성을 본 연구에서는 부각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적 직관이나 수학과 논리학의 정리(定理) 등이 성서 번역에 미친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Keywords)
마태복음 10:38, 부정어 οὐ, 부정의 범위, 『개역개정』, 『새한글성경』.
Matthew 10:38, negative particle οὐ, the scope of negatio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the New Korean Translation.

(투고 일자: 2026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6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26년 4월 14일)

<참고문헌>(References)

류호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마태복음 — ”,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2024), 22-30.

정창욱,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누가복음 — ”,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2024), 31-41.

France, R. T., *The Gospel of Matthew*, NIC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7.

Plutarch, *De sera numinis vindicta.*

Richmond, B. and Richmond, T., *A Discrete Transition to Advanced Mathematics*, Pure and Applied Undergraduate Texts 3, Providenc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2004.

Turner, D. L., *Matthew*,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Abstract>

The Scope of Negation of οὐ in Matthew 10:38

Chul Heum Ha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New Korean Translation (NKT) offers a significantly different translation of Matthew 10:38 — and its parallel verse Luke 14:27 — from the previous Korean translations as well as English translations. Jesus says, according to the GNT[5], ὃς οὐ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οὐκ ἔστιν μου ἄξιος, which can be literally translated "the 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Most, if not all,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take the particle οὐ to negate not only the first clause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he] takes his cross), but also the second clause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he] follows me). Thus read, Matthew 10:38 means that unless one both takes his cross and follows Jesus, he or she is not worthy of him. Thus, those who are not worthy of Jesus include those who follow Jesus but do not take their cross, those who take their cross but do not follow him, and those who neither take their cross nor follow him. This conclusion is supported by De Morgan's Law, $\sim (P \wedge Q) = \sim P \vee \sim Q$, according to which Not (both A and B) means Not A, Not B, or Not A and Not B.

This reading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negative particle οὐ — and the English "not" — negates what follows and that the scope of negation is ambiguous in that the particle can negate either only the immediately following clause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or the following two clauses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Similarly, the Korean '않다' (not) negates what precedes, negating either only the immediately preceding clause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or the preceding two clauses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καὶ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In contrast, the NKT takes the negative particle οὐ to negate only the immediately following clause λαμβάνει τὸν σταυρὸν αὐτοῦ, but not the second clause ἀκολουθεῖ ὀπίσω μου. Then Matthew 10:38 refers to those who do not take their cross but follow Jesus. In so doing, the NKT highlights one meaning of the possible three meanings inherent in the Greek verse, at the cost of the

ambiguity of the Greek text.

Matthew 10:38 is to be understood in light of Matthew 16:24, which states that whoever wants to follow Jesus must deny themselves, take their cross, and follow Jesus. Matthew 10:38 speaks of those who fall short of being such an ideal follower of Jesus, whether they fail to take their cross or follow Jesus. This study shows that the previous Korean translations, including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offer a better translation of Matthew 10:38 than the NKT in that they are ambiguous in reflection of the ambiguity of the Greek text.